

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 
세입·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

□검토의견

○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 
예산집행결산 결과, 불용액은 총 13억1,631

만원으로 소관 예산규모대비 9.2%를 차지  
하였는바,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불용  
액비율 3.1%에 비해 약 3배가 높은 비율  
로서 불용액의 과다발생 추세가 지속적으  
로 발생하고 있음.

-연도별 세출예산집행 현황

(단위 : 천원)

회계년도	세출예산현액	세출집행액(결산액)	불용액	비율
'98	11,182,790	10,145,333	1,037,457	9.3%
'99	11,420,599	10,359,985	1,060,614	9.3%
2000	14,316,462	13,000,146	1,316,315	9.2%

○ 예산불용이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절감차  
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 결  
과 발생한 불용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  
다고는 하나 신년도에는 보다 더 면밀한  
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시로 예  
산집행 가능액을 점검하여 불용액이 최소  
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특히 예산이 기 편성되어 의회에 회부되어  
심사하는 과정에 집행과 정상의 제한 사항  
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이  
추가 반영됨으로써 불용액이 과다 발생할  
가능성이 상존함으로 향후 예산 편성시에  
는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충분  
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 
확정해야 할 것임.

○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측  
하지 못한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여 행정과  
목(동일'항' 내의 세항·세세항·목)상호간

에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00회계년  
도에는 총3건의 전용이 있었는바, 그 금  
액은 2억7,695만원임.

- '의전용차량 구입'은 당초 2대구입 소요예  
산이 편성되었으나, 1대 추가 구입으로  
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가 소요예산을 확  
보코자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전용  
조치하였고

- '서울시의회사 발간'은 당초 자체사업으로  
계획되고 예산반영 되었으나, 전문기관용  
역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추가소요예  
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로 전용조치  
하였으며

- '의정활동용 노트북 지원'은 당초 구입할  
계획으로 소요예산을 자산취득비로 계상  
하였으나, 임차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 
변경되어 일반운영비로 전용조치 된 것임.  
-2000회계년도 예산전용 현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부족액	전용액	불용액	사 유
의전용차량 구입	47,000	68,645	21,645	26,000	4,355	2 → 3대 구입 (일반운영비→자산취득비)
서울시의회사 발간	10,000	56,000	46,000	70,000	24,000	자체추진→전문기관용 역으로 변경 (일반운영비→용역비)
의정활동용 노트북 지원	344,365	180,957	-	180,958	1	구입에서 임차로 사업 계획 변경됨에 따라 과 목변경사용 (자산취득비→일반운영비)

- 이는 각각 예산편성 당시의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그 부족예산을 기정예산 집행잔액분을 활용하여 충당하고 사업내용에 맞도록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기 위한 전용으로 사료됨.
- 그러나 예산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업비 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는 취지를 감안할 때, 예산의 전용조치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하는 등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따라서 예산집행은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구체적이고 세밀히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소요예산을 반영 조치 함으로써 예산불용이나 전용조치를 최소화하는 신중한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임.